

# 일제강점기 신축된 군청사의 설계주체와 평면구성의 특징

김명선  
선문대학교 건축사회환경학부

## The Designers and the Space-Compositions of the *Goon* Office Buildings which were newly constructed in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Myungsun Kim

Division of Architecture, Architectural Engineering and Civil Engineering, Sunmoon University

**요약** 이 연구의 목적은 일제강점기 계획되거나 신축된 공통형 군청사 및 개별형 군청사의 설계주체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공통형 군청사의 평면구성을 기준으로 개별형 군청사의 평면구성 특징을 도출하는 것이다. 연구방법은 국가기록원 소장 군청사 관련 도면, 그 해제, 조선총독부와 각 도가 주고받은 문서, 조선총독부관보 및 직원록, 신문과 잡지의 기사·도면·사진 등을 분석하는 문헌연구방법이다. 공통형 군청사의 설계주체는 1910년대에는 조선총독부 직속 건축조직이었고, 늦어도 1926년 이후는 도 소속 건축조직이 가담했다. 개별형 군청사의 설계주체는 도 소속 건축조직이었다. 두 조직의 설계자 개인의 이름과 관등도 몇몇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데 도 소속 설계조직이 공동도면을 군의 사정에 맞게 변형하는 것도 당시에는 '설계'로 지칭되었다. 도 소속 설계조직은 군 업무에 필요한 실들을 사무공간·부속공간으로 분리 배치하는 방식을 유지하면서 건물 전체 규모를 일제히 축소하거나 확대하는 방식으로 공동도면을 활용하기도 했다. 개별형 군청사의 평면구성은 공통형과 공통점 및 차이점을 동시에 가지는데, 차이점은 개별형 군청사 설계자인 도 소속 건축조직의 능력과 개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iscover who designed the common type and the individual type Goon office buildings in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and to determine how the individual type's space-compositions were compared with the common types. The study used the literature research method. The method used an analysis of the digital images of the Goon office buildings kept in the national archive of Korea, the annotation of the images, the official documents between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and To, the employee's registers of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and newspapers or journals from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The designers of the common types were the engineers of the building-construction part in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and also those in To. The space-composition of the individual types was similar to and also different from the common types at the same time, and the difference was attributed to the designers' ability and their preferences.

**Keywords :** *Goon* office building, common type, individual type, designer, space-composition,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 1. 서론

일제강점기 군청사는 공통형과 개별형으로 구분된다.

공통형은 시설의 균질성을 유지하면서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건축하기 위해 일종의 표준도면인 공동도면을 작성해 지은 군청사(주로 양식목조)를 말하며, 개별형은 개별

이 연구는 2016년도 선문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졌음.

\*Corresponding Author : Myungsun Kim(Sunmoon University)

Tel: +82-41-530-2323 email: rosaria@sunmoon.ac.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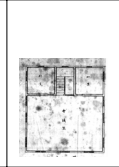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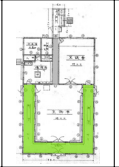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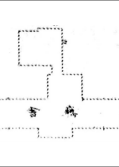
Received May 9, 2016

Revised May 26, 2016

Accepted July 7, 2016

Published July 31, 2016

Table 1. Tree plans of 5 prototype schemes for *Goon* office building construction

type	type 1		type 2	type 3-1	type 3-2	type 4	type 5
story	1 <sup>st</sup> floor	2 <sup>nd</sup> floor	1 <sup>st</sup> floor				-
plan							

\* The parts with green color are the corridors for the visitors and the gray for the workers. It is applied to all Tables.

\*\* source : [2]. The type 1 has tree plans with same space-composition but different sizes; main building 72pyung(annex building 21pyung), 88pyung(21pyung) and 108pyung(31pyung).

도면을 작성해 짓거나 기존 건물(주로 한옥)을 군 업무에 맞게 변형한 군청사를 말한다[1]. 최근 공통형 군청사의 평면도·배치도의 유형 및 증·개축 경향을 고찰한 연구[2,3](이 연구들에서 밝혀진 공통형 군청사의 평면도·배치도 5가지 유형을 Table 1에서 정리)와 한옥을 변형한 개별형 군청사의 증·개축 경향을 고찰한 연구[4]가 나왔지만, 개별형 군청사에 대해서는 연구된 바가 없다.

이 연구는 공통형·개별형 군청사의 설계주체를 가능한 한 개인 이름까지 구체적으로 발굴하고, 기존연구에 더해 공통형 및 개별형 군청사 평면도를 추가 발굴하여 평면구성의 원칙을 살펴본 후, 공통형에 대비하여 개별형 군청사의 평면구성의 특징을 추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이고 연구자료는 디지털 자료로 구축된 국가기록원 소장 군청사 관련 도면[5], 그에 대한 해제(『일제시기 건축도면 해제 VII』(2014), 이후 『해제』로 약칭)[1], 그리고 조선총독부와 각 도가 주고받은 건축회계 관련 문서들과 조선총독부관보 및 조선총독부직원록, 신문과 잡지에 실린 군청사 관련 기사로 한다.

## 2. 군청사의 설계주체

### 2.1 1910년대 공통형 군청사의 설계주체

공통형 군청사의 설계주체는 조선총독부 직속의 건축 관련 업무를 본 부서로, 부서명은 영선과(1910-21), 건축과(1922-28)로 시기별로 달랐다. 조선총독부 기구가 자주 개편되는 바람에 그 상위 부서는 총무부·총독관방·토목부로 바뀌었지만 건축 업무는 독립된 ‘과’에서 보다가, 1928년 건축 관련 조직이 통합되면서 회계과 산하 ‘영선계’로 축소되어 해방까지 이어진다[6].

이 건축조직에서 공통형 군청사 설계를 맡은 구체적인 인물을 발견할 수 있다. 바로 경북 달성군청사의 “신축

공사 설계는 총독부 쿠니에다(國枝) 기사의 손으로 전부 완료되었”다는 1914년 5월 신문 기사를 통해서다[7]. 신축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현장 측량을 한 인물도 알 있는데, 충남 서천군청사의 “신건축 허가를 위하여 지난 달 26일에 토리아(鳥屋) 기수가 측량하여 지군을 측량한 후 본월부터 건축에 착수”한다는 1918년 7월 신문 기사이다[8].

조선총독부직원록에 따르면, 1914년 신문기사의 쿠니에다는 당시 조선총독부 토목국 영선과에서 관동 5등으로 근무하던 쿠니에다 히로시(國枝博)이다[9]. 그는 1905년 동경대 건축과를 졸업한 후 1906년 대한제국 정부의 재정고문부 초빙기사로 한반도로 온 이후 줄곧 군청사 설계를 맡아온 인물로[10], 직원록에는 1910-8년 기사로 일한 것으로 나온다. 한편 1918년 기사에서 토리아는 같은 자료에 따르면 당시 조선총독부 토목국 영선과 소속 관동 7등의 기수 토리아 쿄우고로우(鳥屋光五郎)이다[9]. 1910-21년 기수로 일한 직원록 기록이 있다.

### 2.2 1920년대 중반 이후 군청사의 설계주체

Table 2는 군청사 설계주체가 해당 군을 관할한 도 소속 건축조직으로 기록된 사례들을 설계시기 순으로 정리한 것이다. 이 표에 등장하는 군청사가 공통형인지 개별형인지는 확실치 않다. 조선총독부 건축조직이 설계한 공통도면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사정에 맞게 변형을 가하는 정도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았는데[3], 당시 이 경우도 ‘설계’로 지칭했기 때문이다. 다만, 늦어도 1926년 이후에는 도 소속 건축조직이 설계를 맡았음은 확실하다.

또한 조선총독부관보를 통해 일제강점기 지방관서 중 각 도의 조직을 살펴보면, 1910년 10월 1일 조선총독부 훈령 제3호로 각 도의 사무가 장관관방·내무부·재무부로 분장되고 회계과가 “영선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도록 규

정된다[11]. 영선 업무는 함남·함북에서 1925년 토목과로 이관되기도 했지만 대체로 도의 회계과가 맡았다. 구체적으로 Table 2의 출처들을 통해 회계과 산하 영선계가 군청사 설계를 맡았음을 알 수 있다.

Table 2. Design parts of *Goon* office buildings after 1926

design year	<i>Goon</i>	Do(design part belonged to)	source
1926	ShinCheon	HwangHae	Dongailbo 1926.5.8.
1928	YeongAm	JeonNam	Maelsinbo 1928.6.16.
1929	ChungJu	ChungBuk	Maelsinbo 1929.7.1.
1930	BongSan	HwangHae	Maelsinbo 1930.3.4.
	DaeDong	PyeongNam	Joseon-to-Kenchiku 9(4), 1930.4: 50
	JeongSeon	GangWon	Maelsinbo 1930.6.28.
	DaeJeon	ChungNam	Joseon-to-Kenchiku 9(7), 1930.7: 44
	HaeJu	HwangHae	Maelsinbo 1930.9.23.
1931	SeoSan	ChungNam	Joseon-to-Kenchiku 10(7), 1931.7: 46
1932	YeongCheon	KyungBuk	Maelsinbo 1932.7.11.
	GwangJu	JeonNam	Joseon-to-Kenchiku 11(9), 1932.9: 18
1934	JeonJu	JeonBuk	Maelsinbo 1934.8.24.
	DanYang	ChungBuk	Maelsinbo 1934.12.26.
1935	KoSung	KyungBuk	Maelsinbo 1935.10.5.

Table 2의 출처들에는 도, 도 토목과 혹은 도 영선계에서 설계중이라는 정도로 흔히 서술된다. 그러나 1929년 충주군청사 신문기사에는 “도 토목과장 요시다(吉田) 기사가 설계중”, 1930년 정선군청사 기사에는 “설계는 도 기수 토우다 소우지로우(上田惣次郎)의 고심”, 또한 1934년 단양군청사 신문기사에는 “류연(柳軟) 도 기수의 설계와 감독”라고 기록되어, 설계자 이름을 알 수 있다.

조선총독부 직원록에 따르면 요시다는 1923-7년 충청북도 내무부 토목과, 1929년 내무부 토목과 및 회계과에서 근무한 요시다 히데요시(吉田秀吉)인데, 신문기사와 달리 1929년 당시 관등 4등급 기수였다[8]. 정선군청사 설계자 토우다 소우지로우는 1919-20년 조선총독부 영선과, 1921-25년 경남 내무부 회계과, 1930-1936년 강원도 내무부 회계과에서 근무했고, 1930년 설계 당시 관등 5등 기수였다. 단양군청사 설계자 류연에 대한 직원록 기록은 찾을 수 없고, 1928-40년 충청북도 내무부 회계과에서 기수로 근무한 야나세 사이치(柳瀬佐市)란 인물이 있어서, 신문기사의 오기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

### 3. 군청사의 평면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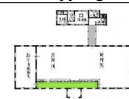

군청사 평면구성을 살펴보면, 사무실·민원인 대기공간·회의실·군수실·응접실 등을 모으고 창고·숙직실·소사실·당비장·변소 등을 모아서 구분 배치하는 것이 평면구성의 전제가 됨을 알 수 있다. 앞쪽을 ‘사무공간’, 뒤쪽을 ‘부속공간’이라 칭하겠다. 각각 청사와 부속가로 나눈 후 연결복도로 이었다. 또 부지에는 별동으로 지적창고·서류창고·일반창고 등이 들어서고, 회의실은 별동으로 지어 연결복도로 잇기도 했다. Table 1의 5가지 유형은 이 청사(사무공간)-부속가(부속공간)를 어떻게 연결하느냐, 청사의 평면구성은 어떠한가, 배치도만 있을 때는 전체 형상은 어떠한가를 기준으로 구분한 것이다.

#### 3.1 공통형: 같은 평면구성에 단계별 규모의 평면

그런데 공통도면의 경우 똑같은 평면구성으로 규모를 3-4단계로 달리해서 안을 만든 사례가 있다. 한 사례는 Table 1의 공통도면 유형(type) 1에 해당한다. 같은 평면구성으로 청사 규모만 3단계로 달리 했다[1] 및 Table 1 주기 참조). Table 1의 유형 1 평면도를 보면, 2층 규모의 청사 1층에 대합소·사무실·군수실·응접실을 두고 뒤편 중앙의 계단실을 통해 2층으로 오르면 큰 회의실이 있다. 단층의 부속가는 특이하게 계단실에서 청사 뒤로 이어지는데 그 규모는 2단계로 다르다.

이 연구는 또 다른 사례를 1931년 경상북도가 작성해서 조선총독부로 보낸 문서[12]에 첨부된 ‘경북군청사평면도’에서 발견했다(Table 3). 청사 규모는 60, 80, 100, 120평의 4단계로 달리 하되, 앞서 유형 1과는 달리 부속가 규모는 4개 안 모두 18평으로 같다. 그런데 이 평면도는 1910년대 조선총독부 회계과에서 만든 공통도면 유형 3-1에 해당한다(Table 1 참조)[1].

Table 3. Four plans of one prototype scheme 3-1 for *Goon* office building construction in Kyungbuk-do, 1931

	plan		
area	main bldg	60pyung	80pyung
	annex bldg	18pyung	18pyung
	plan		
area	main bldg	100pyung	120pyung
	annex bldg	18pyung	18pyung

\* source: [12]

이 두 가지 사례는 공통도면을 크기별로 준비해서 군의 사정에 맞추어 골랐음을 알려준다. 그 사정은 군청사 부지의 크기나 형상, 군청사 직원수, 군 관할 면의 개수나 군의 위상 등이었다. 유형 1로 지어진 군청사는 발견되지 않는다. 유형 3-1의 경우, 경상북도는 1931년 조선총독부에 신축예산을 요청하는 문서를 보내면서 4개 안 중에서 안동에는 60평 안, 산산·영천·경산·고령에는 80평 안, 의성에는 120평 안을 각각 채택하여 신청하지만[13] 이대로 신축되지는 않았다[2].

### 3.2 공통형: 유형 4 및 유형 5의 평면

Table 1에서 유형 4와 유형 5는 배치도만 알려졌 있는데, 이 연구는 그 평면도를 찾을 수 있었다. 1931년 9월 화제로 광주군청사가 전소된 후[14] 그해 작성한 신축계획안(Table 4의 ①)[15]과 경기도 양평군청사(Table 4의 ②), 짙은 회색을 칠한 부분은 나중에 증축을 계획한 사무실임[16]이 유형 4이고, 강원도 인제 및 화천군청사 신축평면도가 유형 5이다(Table 5의 ①, ②)[17]. 유형 4는 2층, 유형 5는 단층이다.

Table 1(유형1-2-3), 4(유형4), 5(유형5)의 평면구성을 함께 보면, 1)전면에 주현관, 후면에 계단실과 부속가를 배치, 2)전면에서 좌우대칭 유지, 3)앞쪽 복도(평면도에 초록색 처리)를 민원인 대기소, 부속가와 연결하는 뒤쪽 복도(평면도에 회색 처리)를 직원용 복도로 구분하는 3가지 특징은 모든 유형의 공통점이다. 한편 유형1-2는 전면보다 측면을 짧게 하고 유형3-4-5는 4)전면을 길쭉하게, 측면을 짧게 처리한다. 전자로 지어진 사례가 발견되지 않는데 반해 후자로 지어진 사례가 많으므로 4)를 공통형 평면구성의 일반적 특징으로 보겠다.

Table 4. Plans of the prototype scheme 4 and 5 for Goon office building construction

Goon (construction year)	type 4	
	1 <sup>st</sup> floor	2 <sup>nd</sup> floor
① GwangJu (not constructed)		
② YangPyung (1921)		not shown in the source

\* source: ① [15], ② [16]

Table 5. Plans of the prototype scheme 4 and 5 for Goon office building construction

Goon (construction year)	type 5
	(one-story building)
① InJe (1932)	
② HwaCheon (1933)	

\* source: [17]

### 3.3 공통형과 대비해 본 개별형의 평면구성

기존연구(2)와 본 연구를 통해 밝혀진 공통형 군청사의 5가지 평면유형에서 벗어나고 문헌상으로 신축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아래에서 그 평면구성의 특징을 살펴보겠다.

1935년 6월 평안북도가 관할 군청사에 대한 1936년도 수선계획을 승인받기 위해 조선총독부 내무국장 앞으로 보낸 문서[18]에는 의주군청사 평면도(Table 6의 ①)가 첨부되어 있다. 또한 1940년 3월 황해도가 조선총독부 내무국장 앞으로 관할 군청사 증축 예산을 신청하기 위해 보낸 문서[19]에는 황주군청사 평면도(Table 6의 ②)가 첨부되어 있다. 두 문서에 따르면 둘 다 목조 2층으로 지어져 있었다.

Table 6. Plans of Goon office buildings in Pyungbuk-do ① and Hwanghae-do② for repair

Goon (construction year)	1 <sup>st</sup> floor plan	2 <sup>nd</sup> floor plan
① EuiJu (1918)		
② HwangJu (19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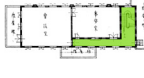

\* source: ① [17], ② [18]

이들의 평면구성을 3.2에서 정리한 공통형 군청사의 평면구성 특징과 비교하면, 의주군청사는 공통형의 특징 1)·4)는 공유하지만, 현관을 전면우측에 치우쳐 내어서 2)(전면에서 좌우대칭)을 벗어나고, 또한 앞쪽에는 복도가 아예 없고 직원용 편복도를 후면에 면해서만 내어 3)(민원인용-직원용 복도 구분)을 벗어난다. 황주군청사는

1)-2)-4)을 공유하지만, 의주군청사와 마찬가지로 후면에 편복도를 내어 3)에서 벗어난다.

한편, 공통형의 평면구성의 특징과 완전히 다른 개별형 군청사 평면도 있다. 1931년 9월 광주군청사가 전소된 후 전라남도 회계과 영선계에서 작성한 평면도이다 [20](Table 7). Table 4 ①의 화재 직후 작성한 평면도는 계획안에 그쳤다면, 1932년 Table 7의 이 평면도대로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지어졌다.

Table 7. Plans for new GwangJu Goon office Building

1 <sup>st</sup> floor plan	2 <sup>nd</sup> floor plan	exterior
		

\* source: [19]

1·2층 평면도에서 초록색 칠한 L자형 복도가 나고 직각으로 꺾인 복도, 즉 좌측 사무공간(1층: 사무실·군수실, 2층: 회의실·사무실)과 우측 부속공간(숙직실·탕비실·소사실·변소) 사이에 나 있다. 이렇듯 계획된 실들과 사무공간·부속공간의 구별배치 전제는 공통형과 같다. 그러나 L자형으로 처리한 복도에 바로 계단을 내어 민원인 대기공간과 직원 전용 복도를 구분하지 않은 점, 청사·부속가 구분과 연결복도를 없앤 점은 기존의 공통형 뿐 아니라 개별형의 평면구성에서 볼 수 없던 기법이다. 마치 현대사무소의 편심코어 평면과 같다. Table 7에서 보듯 외관 역시 모더니즘의 영향이 완연하다.

#### 4. 결론

1910년대 공통형 군청사의 설계(공통도면 작성)는 조선총독부 직속의 건축조직이 맡았다. 그러나 늦어도 1926년 이후부터는 도의 설계조직(도·내무부·회계과·영선계)도 설계에 참여했다. 이들은 조선총독부 건축조직이 작성한 기존의 공통도면을 일부 변형(‘활용’)한[3] 안을 만들기도 하고 아예 개별도면을 작성하기도 했다. 당시 신문·잡지 기사는 이 모두를 ‘설계’로 지칭했다.

도 소속 설계조직은 3·4단계의 규모만 달리한 공통도면 평면도를 작성해서 군의 사정에 맞추어 선택했음을 확인했다. 이때 군 업무에 필요한 실들을 군에 따라 달리

한 것이 아니라, 동일한 실들을 사무공간·부속공간으로 분리하여 배치하는 방식은 군 마다 유지하면서 건물 전체를 일제히 축소하거나 확대하는 방식으로 차이를 주었다. 공통도면 활용의 한 방식이라 하겠다.

조선총독부 건축조직에서 군청사 설계를 담당한 인물로 기사 쿠니에다 히로시를 확인했고 현장조사도 이 조직이 맡았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1929년 이후 도 소속 건축조직에서 군청사 설계를 담당한 인물들의 이름도 몇몇 확인했는데 모두 기수였다.

본 연구가 발굴한 개별형 의주군청사(1918년 신축)와 황주군청사(1922년 신축)는 공통형 군청사의 사무공간·부속공간 구분 및 청사 평면구성 특징 일부를 공유하므로 공통형의 영향을 읽을 수 있지만, 민원인 대기공간 역할을 한 복도를 없앤 대신 군청 직원용의 편복도를 후면에 낸 특이성을 보인다. 어떤 이유로 이 방식을 선택했는지, 관찰 도 건축조직의 설계인지에 대해서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고, 그에 따라 도 건축조직 설계가 시작하는 시기도 빨라질 수 있겠다.

한편 1932년 신축된 광주군청사는 여타 공통형·개별형 군청사가 공유하는 평면구성 특징에서 벗어나 소규모 현대 사무소 건축의 평면구성과 모더니즘의 영향이 분명한 외관을 보여준다. 하위 행정관청사로서는 이례적인데, 광주군이 상당히 중요한 위상을 가진 군이었을 뿐 아니라 전남 소속 건축조직이 철근 콘크리트의 특성을 이해하고 최신의 모더니즘 경향을 수용·적용할 만한 설계능력을 갖추었음을 보여준다. 공통형 군청사는 1930년대 후반까지도 꾸준히 지어진다. 그러나 이 경우에서 보듯이 1932년경에는 군청사 설계에서만큼은 공통도면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날 만큼의 설계 자유도가 도 소속 건축조직에 허용되었음을 엿보게도 한다.

#### References

- [1] National Archives of Korea, *Annotation of the Architectural Drawing in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Vol VII, National Archives of Korea, pp.367-389, 2014.
- [2] Kim, Myungsun, “Site-Plan Types of Common Design's Goon Office Buildings and their Addition & Remodeling in Japanese Colonial Period”,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6, No.11, pp.7629-7634, November, 2015.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5.16.11.7629>
- [3] Kim, Myungsun, “Architectural Characteristics of the newly constructed Goon Office Buildings and Influence

of their Prototype Schemes in the Period of Japanese Colonial Rule in Korea”, *Journal of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Vol.32, No.2, pp.121-131, July 2016.

- [4] Joo, Sang-Hun, “Ways of Remodeling from the Traditional Hanok to the Modern Local Governmental Facility in 1910s”, *Journal of Architectural History* Vol.24 No.1, pp.7-16, February 2015.  
DOI: <http://dx.doi.org/10.7738/JAH.2015.24.1.007>
- [5] National Archives of Korea, Archives of Architectural drawings in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Available From: <http://contents.archives.go.kr>. (accessed April, 2016)
- [6] Joo, Sang-Hun, *Characteristics of Building the Modern Facilities administrated by the Japanese Government General in Korea*, PhD. Dissertation, the graduate school of Seoul National Uni., p.361, 2010.
- [7] MaeilSinbo 1914.5.31.
- [8] MaeilSinbo 1918.7.7.
- [9]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History, Employees’ register book of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http://db.history.go.kr/item/level.do?itemId=jw> (accessed April, 2016)
- [10] A Study on the Japanese Architectural Engineers, Iwata, Kunieda and Watchable employed by Korean Government in 1905-1910, *Journal of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Vol9, No.8, pp.103-113, March 1993
- [11] The official gazette of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Vol. 29, 1910.1.1.
- [12] Gyeongsangbuk-do, “Subject about the budget plan in the year of Shouwa 6”, *Document in relation to the construction plan of the local administration offices after Shouwa 6-Kyungsangbuk-do*, 1931(CJA: document management number of National Archives of Korea 0002791)
- [13] Gyeongsangbuk-do, “Subject about the construction plan in the year of Shouwa 6”, *Document in relation to the construction plan of the local administration offices after Shouwa 6-Kyungsangbuk-do*, 1931 (CJA0002802)
- [14] Dongailbo 1932.5.24.
- [15] Jeollanam-do, “Subject about the disaster recovery expenditure of Gwangju Goon office building”, *Document in relation to local budget of To*, 1931 (CJA0002790)
- [16] Kyunggi-do, “Subject about the budget requirement for the construction of recal office buildings and their facilities in Shouwa 8”, *Document in relation to the construction of the local administration office buildings*, 1933 (CJA0002950)
- [17] Gangwon-do, “Subject about the budget plan in the year of Shouwa 6”, *Document in relation to the construction plan of the local administration offices after Shouwa 6-Kyungsangbuk-do*, 1931 (CJA0002791)
- [18] Pyeonganbuk-do, “Subject about plans for construction and repair in Shouwa 11”, *Document in relation to the budget request of local administration in Shouwa 11*, 1935 (CJA 0003139)
- [19] Hwanghae-do, “Subject about the budget distribution for construction of the local administration office buildings”, *Document in relation to the construction of the local*

*administration office buildings*, 1940 (CJA0003566)

- [20] Joseon-to-Kenchiku 11(9), 1932.9, page number is not shown.

김 명 선(Kim-Myungsun)

[정회원]



- 1997년 2월 : 서울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건축학석사)
- 2004년 2월 : 서울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건축학박사)
- 2000년 3월 ~ 2015년 2월 : 선문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 2015년 3월 ~ 현재 : 선문대학교 건축사회환경학부 교수

<관심분야>

한국근대건축사, 건축리모델링